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 종단적 관련성*

서미정¹⁾

요약

본 연구는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4세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여기서 확인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의 5개년 자료(1차년도~5차년도)를 활용하였다. 먼저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은 고수준 안정형, 중간수준 안정형, 중간수준 증가형, 고수준 감소형의 4개 잠재집단이다. 다음으로 아버지 결혼만족도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발견하였다. 어머니 결혼만족도는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이 중간수준 증가형일 때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한 반면, 나머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양육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 아버지로서 남편의 양육참여가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아버지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성장혼합모형, 잠재성장모형

I. 서론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역할에는 어머니의 비중이 컸으며, 아동의 신체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어머니 역할과 대비시켜 아버지 역할은 이차적 역할로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17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문의 전문임.

1)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조교수

간주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공동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 및 소가족이 주를 이루면서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기를 더욱 요구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변화뿐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근 몇 십년 동안 아버지 역할의 경험적 연구들이 증가해 왔다(Pleck, 2010).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인지, 사회, 정서 및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지현, 2017; 서석원·김대균, 2014; 장영애·이영자, 2008; 최진주, 2004; Cabrera, Fitzgerald, & Bradley et al., 2007; Pleck, 2010). 또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효능감(권혜진, 2010) 및 삶의 만족도(Eggebean & Knoester, 2001), 그리고 낮은 양육스트레스(남효정·이숙현, 2011)와 관련되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서미정, 2011) 및 양육스트레스(서미정·최은실, 2016; 서석원·이대균, 2014; 최효식·연은모·권수진 외, 2013; McBride et al., 2002)를 낮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갈등과는 부적 관련성(김은정·박성덕·김경철, 2014; Planalp & Braungart-Rieker, 2016)을, 결혼만족도와는 정적 관련성이 보고되는(손영빈·윤기영, 2011) 등 결혼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서미정, 2011; 엄성혜·전효정·고은경, 2017).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유아기 자녀뿐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McBride, Schoppe, & Rane, 2002; Pleck, 2010).

한편 자녀의 발달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자녀가 3개월에서 20개월까지는 아버지가 영아와 놀이하거나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lanalp & Braungart-Rieker, 2016; Planalp, Braungart-Rieker & Lickenbrock et al., 2013). 하지만 자녀가 6개월에서 30개월까지 아버지 양육참여는 거의 변화없이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내었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발달의 더 긴 기간을 추적한 Chuang, Lamb, 그리고 Hwang(2004)은 자녀가 1세에서 7세까지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에 대한 탐색은 신생아 가구를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변화가 거의 없어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김은정 외, 2014). 자녀 출생 후 만 2세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다가(최

효식 외, 2013), 이후 4세까지 감소하는 역 U자 변화패턴이 확인된 바 있다(서미정·최은실, 2017). 이와 같이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의 변화에 관심을 둔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평균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 개인마다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구결과들(서미정·최은실, 2017; 최효식 외, 2013)은 아버지 양육참여가 변화하는 패턴이나 속도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실시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유사한 변화패턴에 따라 개인을 분류하는 관찰대상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es)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다양한 변화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역동에 초점을 두는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 내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는데, 아동발달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뿐 아니라 부모 간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Planalp & Braungart-Rieker, 2016). 왜냐하면 부부관계의 질은 부모-자녀 관계로 전이되며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며(서미정, 2011; 손영빈·윤기영, 2011; 엄성혜 외, 2017), 부정적인 결혼관계를 인식한 어머니들은 남편이 아버지로서 양육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asterbrooks, Raskin, & McBrian, 2014; Planalp & Braungart-Rieker, 2016; Volling & Belsky, 1991).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 횡단적 관련성이 밝혀져 왔으나, 이 둘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의 관심은 부족하다. 하지만 아버지 양육참여의 정도가 변화함에 따라 부모의 결혼만족도도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결혼생활의 질을 반영하는 결혼만족도가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경험적 연구들에 기초한 것이다(김연하, 2016; Kurdek, 2005; Vaillant & Vaillant, 1993).

종단적으로 추적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정현숙(199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가 20대까지 계속 낮아지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가 중, 고등학교 청소년기까지 점차로 낮아지다가 자녀가 20대가 될 때 소폭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여주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는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 이후 5년 간 자녀 수에 상관없이 결혼만족도의 평균 수준은 감소하였으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였다(김연하, 2016).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는 다른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어(Shapiro, Gottman, & Carrere, 2000),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변화의 측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결혼만족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부모의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동안 아버지 양육참여의 다양한 변화유형을 확인해 봄으로써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별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녀가 영유아기 동안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에 따른 하위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별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자료는 200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1차년도부터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 표본은 각각 2,078가구, 1,904가구, 1,802가구, 1,754가구, 1,703가구이다. 전체 표본은 한국아동패널 1, 2, 3차년도 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2,150가구이다²⁾. 1차년도 기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21.1만원($SD = 149.7$)이었다. 아버지 연령은 19세부터 51세까지 분포하고 평균 33.9세($SD = 4.04$)이며, 어머니 연령은 19세부터 46세까지 범위이고 평균 31.3세($SD = 3.72$)이었다. 최종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40.3%(804명), 34.6%(714명)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월령은 만 4개월부터 11개월까지 분포하고 평균 5.6개월($SD = 1.2$)이며, 성별은 남아 1,058명(50.9%), 여아 1,020명(49.1%)이었다.

2) 한국아동패널은 1차년도에 2,078가구를 표집하고, 2차년도에 52가구, 3차년도에 20가구를 각각 추가 표집하였다.

2. 변수 측정

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이하 아버지 양육참여로 통칭함)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홍성례(1995)가 사용한 남편의 가족역할수행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남편의 가족역할수행 척도는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친족 역할’, ‘가사 분담자 역할’, ‘가계경제관리 역할’, ‘부양자 역할’, ‘대외자 역할’ 등 7개 영역이며,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부모 역할’ 영역의 6문항 중 영유아기 자녀양육에 부합하지 않는 2문항(예, ‘자녀들의 공부나 숙제를 도와준다’)을 제외하였다. 문항은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를 포함하여 총 4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남편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1, 2, 3, 4, 5차년도 Cronbach's α 는 각각 .78, .81, .81, .81, .81이다.

나. 결혼만족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 Nicols, Schectman et al.(1983)가 고안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문항은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아버지(어머니)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응답할 수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Cronbach's α 값은 1 ~ 5차년도 각각 .91, .92, .92, .91, .92이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Cronbach's α 값은 1 ~ 5차년도 각각 .92, .92, .92, .92,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 다양한 변화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적용하였다. 관찰대상중심 접근인 성장혼합모형은 종단적으로 유사한 발달경로를 따르는 개인들을 구분해내어 하위집단마다 초기값 및 변화율이 각각 산출된다(Muthén & Asparaouhov, 2008). 즉 성장혼합모형의 1수준 분석을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상이한 변화형태를 나타내는 집단별 함수가 추정된다. 최적의 잠재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하고, 이 외 간명성, 이론적 정당성과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Bauer & Curran, 2003; Muthén, 2003; Rindskopf, 2003).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의 잠재집단이 도출되면, 집단유형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탐색하게 된다. 이 때 자녀가 만 0세에서 만 4세까지 아버지 및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평균적인 변화와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Mplus 5.2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평균은 자녀 출생 후부터 만 2세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만 4세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자녀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후 만 4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또한 자녀 출생 후 만 1세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측정변인의 왜도(절대값 < 2)와 첨도(절대값 < 4) 모두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양육참여 1차	1,859	3.58	.81	-.31	-.20
아버지 양육참여 2차	1,876	3.64	.88	-.36	-.52
아버지 양육참여 3차	1,753	3.72	.84	-.36	-.49
아버지 양육참여 4차	1,695	3.61	.81	-.27	-.37
아버지 양육참여 5차	1,666	3.57	.79	-.31	-.33
아버지 결혼만족도 1차	1,648	4.27	.68	-1.21	2.69
아버지 결혼만족도 2차	1,788	4.29	.71	-1.36	3.04
아버지 결혼만족도 3차	1,673	4.20	.72	-1.05	1.63
아버지 결혼만족도 4차	1,622	4.03	.65	-.46	.49
아버지 결혼만족도 5차	1,611	4.01	.66	-.55	.67
어머니 결혼만족도 1차	1,857	3.81	.77	-.68	.66
어머니 결혼만족도 2차	1,874	3.88	.79	-.76	.75
어머니 결혼만족도 3차	1,756	3.85	.77	-.74	.81
어머니 결혼만족도 4차	1,690	3.74	.73	-.66	.64
어머니 결혼만족도 5차	1,665	3.68	.76	-.82	1.10

2.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4세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변화하는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 수를 확인하기 위해 1, 2, 3, 4, 5집단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가 낮은 모형을 보다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Raftery, 1995).

〈표 2〉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의 모형 적합도와 집단 분포

모형	AIC	BIC	n(%)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1	17765.300	17821.811	2,103 (100)				
2	17723.134	17796.598	1,494 (71.0)	609 (29.0)			
3	17690.768	17781.186	63 (3.0)	1,434 (68.2)	606 (28.8)		
4	17672.171	17779.542	1,334 (63.4)	555 (26.4)	128 (6.1)	86 (4.1)	
5	17643.087	17767.412	267 (12.7)	78 (3.7)	1,101 (52.4)	56 (2.7)	601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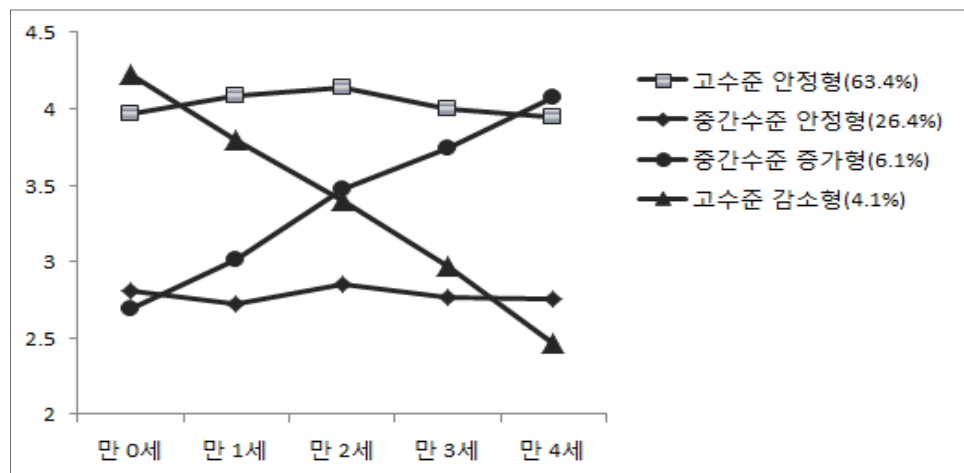
<표 2>에 제시되었듯이, 5집단 모형이 AIC와 BIC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한 집단에 소속된 비율이 2~3%대 정도로 작아, 본 연구에서는 그 다음으로 낮은 BIC값을 보여주면서 해석적인 설명이 보다 적합한 4집단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의 하위집단별 추정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자녀 만 0세) 및 변화패턴에 따라 변화유형을 명명하였다. 먼저 전체의 63.4%를 차지하며 양육참여의 초기값(4.027)은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자녀가 만 4세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집단(변화율 = -0.014, $p > .05$)을 ‘고수준 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중간수준 안정형’은 전체의 26.4%가 속해 있으며 양육참여의 초기값(2.939)은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고 만 4세까지 거의 변화없이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이다(변화율 = -0.015, $p > .05$).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2.914)은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이후 만 4세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집단(변화율 = 0.256, $p < .001$)은 ‘중간수준 증가형’(6.1%)으로, 초기값(4.105)은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는 집단(변화율 = -0.360, $p < .001$)은 ‘고수준 감소형’(4.1%)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에 대한 성장혼합모형의 추정치

변화유형	n(%)	초기값	표준오차	변화율	표준오차
고수준 안정형	1,334(63.4)	4.027***	0.042	-0.014	0.011
중간수준 안정형	555(26.4)	2.939***	0.073	-0.015	0.022
중간수준 증가형	128(6.1)	2.914***	0.113	0.256***	0.028
고수준 감소형	86(4.1)	4.105***	0.149	-0.360***	0.047

*** $p < .001$



[그림 1]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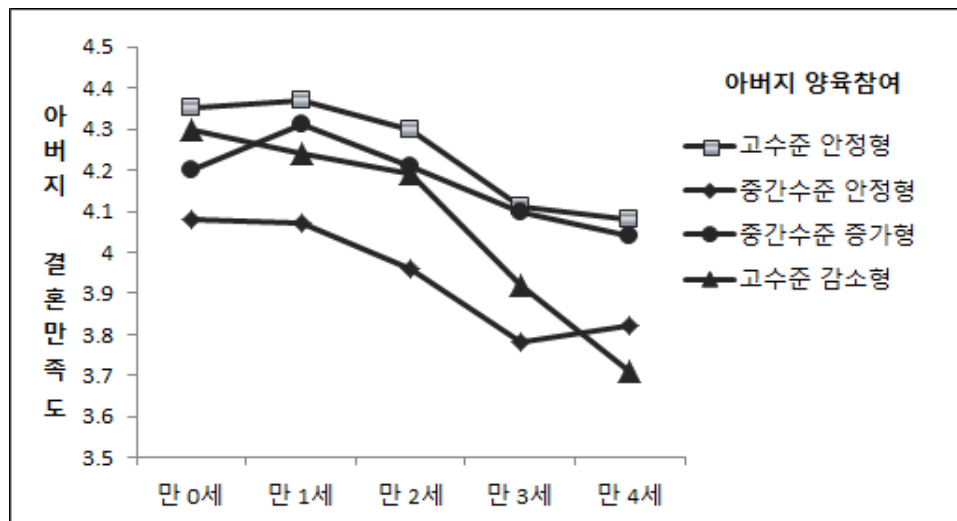
3.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별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에 따른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별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의 추정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4개의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 모두 자녀가 만 0세에는 아버지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의 4집단 모두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녀가 영유아기 동안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표 4>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추정치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			
	평균		변량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고수준 안정형	4.397***	-0.080***	0.139***	0.006**
중간수준 안정형	4.103***	-0.082***	0.217***	0.017***
중간수준 증가형	4.273***	-0.053**	0.200**	0.006
고수준 감소형	4.400***	-0.159***	0.322***	0.01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별 아버지 결혼만족도 변화

이러한 변화양상을 도식화한 [그림 2]를 보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변화형태와 상관없이 자녀가 출생한 시점인 만 0세에는 모두 높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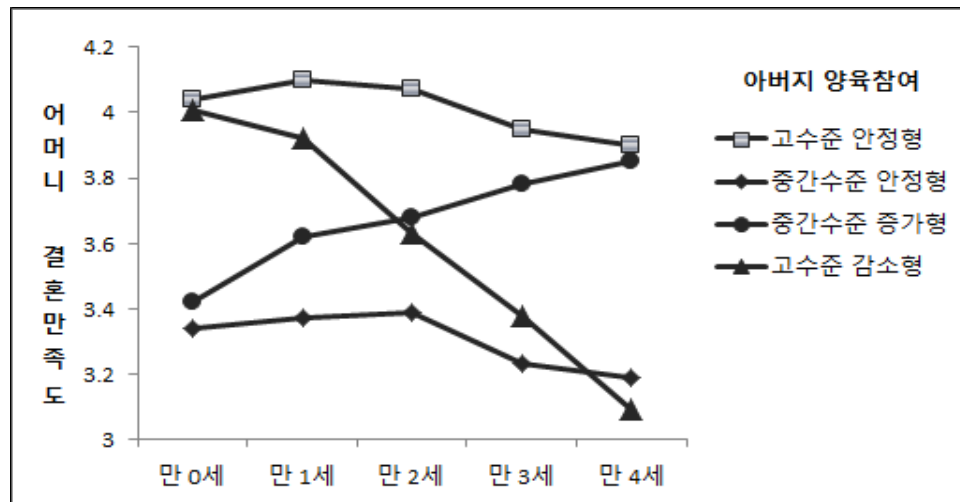
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형태 가운데 ‘중간수준 증가형’의 경우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더디게 감소하는 반면(변화율 = -0.053 , $p < .01$), ‘고수준 감소형’ 집단에서 결혼만족도는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변화율 = -0.159 , $p < .001$).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이 ‘중간수준 안정형’일 때 다른 집단 유형에 비해 아버지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초기값(4.103)으로 시작하고, 만 4세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별 어머니 결혼만족도 변화의 추정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자녀 만 0세)은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이 ‘고수준 안정형’과 ‘고수준 감소형’인 집단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간수준 안정형’과 ‘중간수준 증가형’ 집단에서는 어머니 결혼만족도가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변화율은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형태가 ‘중간수준 증가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형태가 ‘중간수준 증가형’(변화율 = 0.100 , $p < .001$)의 경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또한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변화패턴을 보여준 반면, 이 외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의 경우 변화율은 다르다 해도 어머니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도식화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는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형태와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 중 ‘고수준 안정형’(변화율 = -0.041 , $p < .001$)과 ‘중간수준 안정형’(변화율 = -0.042 , $p < .001$)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더디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형태가 ‘고수준 감소형’일 때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가장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였다(변화율 = -0.226 , $p < .001$).

<표 5>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추정치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			
	평균		변량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고수준 안정형	4.088 ^{***}	-0.041 ^{***}	0.190 ^{***}	0.004 [*]
중간수준 안정형	3.387 ^{***}	-0.042 ^{***}	0.347 ^{***}	0.015 ^{***}
중간수준 증가형	3.472 ^{***}	0.100 ^{***}	0.417 ^{***}	0.011 [*]
고수준 감소형	4.038 ^{***}	-0.226 ^{***}	0.248 ^{**}	0.01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별 어머니 결혼만족도 변화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다양한 변화형태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도출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모의 결혼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만 0세부터 4세까지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은 ‘고수준 안정형(63.4%)’, ‘중간수준 안정형(26.4%)’, ‘중간수준 증가형(6.1%)’, ‘고수준 감소형(4.1%)’의 4개 집단이 발견되었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평균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한 서미정과 최은실(2017)은 아버지들이 자녀 출생 후부터 양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다가 만 2세를 기점으로 만 4세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밝힌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자녀 만 0세) 및 변화패턴에 따라 다양한 변화유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즉 아버지가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대부분 고수준 또는 중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0% 정도의 아버지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에 있어 ‘고수준 안정형’이 전체의 약 2/3(6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양육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어머니에

게 많이 부과되었던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도 자녀양육에 대한 양성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며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만족도 변화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먼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의 4 집단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양상에 관계없이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는 자녀가 영유아기 동안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아버지 결혼만족도의 평균적인 변화가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고한 김연하(2016)의 연구와 일관적이다. 하지만 아버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은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패턴이 ‘고수준 감소형’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중간수준 증가형’에 속한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는 비교적 더디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에서 ‘고수준 안정형’과 ‘중간수준 안정형’의 경우, 아버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은 유사하지만 ‘중간수준 안정형’은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4세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느끼는 결혼만족도의 변화양상이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과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이 ‘중간수준 증가형’일 때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결혼만족도 증진에 아버지의 지속적인 양육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나머지 변화유형들은 변화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모두 어머니 결혼만족도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양상이 ‘고수준 감소형’일 때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아버지 양육참여가 시간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고수준 안정형’과 ‘중간수준 안정형’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더디지만 감소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김연하, 2016; Shapiro et al., 2000; Twenge, Campbell, & Foster, 2003; Vaillant & Vaillant, 1993).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가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과 더욱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기로의 전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보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메타분석 결과(Twenge et al., 2003)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 출산 전후 감소폭에서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 (Shapiro et al., 2000)와 같은 맥락이다. 즉 부모기로 접어들면서 부모 역할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결혼만족도 모두 어머니가 인식한 점이 고려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 측정 문항이 유사한 측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측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합하면, 본 연구에서처럼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게 인식할 때 어머니 자신의 양육부담을 덜어준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만족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 다양한 변화형태를 밝힌 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평균적인 변화양상에 주력해온 선행 연구들(김은정 외, 2014; 서미정·최은실, 2017; 최효식 외, 2013; Chuang et al., 200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Planalp & Braungart-Rieker, 2016; Planalp et al., 2013)을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횡단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졌던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모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밝힌 데 의의를 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참여를 측정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 추후에는 아버지가 평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와 부모의 결혼만족도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종단적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있어 보다 더 긴 기간을 추적하면 전환 시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변화패턴이 파악되면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적 개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양상이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이해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있어 다양한 변화형

태를 파악하여 개입에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을 확인하였다. 즉 양육참여의 변화유형 가운데 ‘중간수준 안정형’ 및 ‘고수준 감소형’에 속한 아버지들이 자녀가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회성의 부모교육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부모참여나 직장에서의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동시에 보육기관 및 기업에서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보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와 더욱 관련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내용을 부모교육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유형과 상관없이 자녀 출생 후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는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양육참여 외 어떤 요인에 의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대규모 표본을 구축하여 장기간에 걸친 종단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하겠고, 관련 연구를 통해 아버지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권혜진(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김연하(2016). 한국 아동패널 2008-2012 자료를 활용한 자녀 출산 후 5년간의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궤적. *아동학회지*, 37(4), 47-56.
- 김은정·박성덕·김경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육아정책연구*, 8(1), 129-151.
- 김지현(2017).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와 만 5세 자녀의 전반적 발달문제: 한국아동패널 1차, 2차, 3차, 6차년도 자료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효정·이숙현(2011).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07-121.
- 서미정(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

-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및 모의 자아인식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2(6), 107-121.
- 서미정·최은실(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0(5), 575-594.
- 서미정·최은실(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양상. *유아교육학논집*, 21(5), 377-397.
- 서석원·김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손영빈·윤기영(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엄성혜·전효정·고은경(2017). 부의 양육참여가 모의 온정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모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8(1), 153-167.
- 장영애·이영자(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정현숙(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 최진주(2004).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er, D. J., & Curran, P. J. (2003). Overextraction of latent trajectory classes: Much ado about nothing? Reply to Rindskopf (2003), Muthén (2003), and Cudeck and Henly (2003). *Psychological Methods*, 8, 384-393.
- Cabrera, N. J., Fitzgerald, H. E., Bradley, R. H., & Roggman, L. (2007). Modeling the dynamics of paternal influences on children over the life course.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1(4), 185-189.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huang, S. S., Lamb, M. E., & Hwang, C. P. (2004). Internal reliability, temporal stability, and correlat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paternal involvement: A 15-year longitudinal study in Sweden. In R. D. Day & M. E. Lamb (Eds.),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 (pp. 129 - 148). Mahwah,

NJ: Erlbaum.

- Easterbrooks, M. A., Raskin, M., & McBrien, S. F. (2014).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 regulation: Evidence from a high social risk sample.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12, 71-93.
- Eggebean, D. J., & Knoester, C. (2001). Does fatherhood matter for 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381-393.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urdek, L. A. (2005).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early in marriage: A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68-84.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98-1011.
- Muthén, B. (2003). Statistical and substantive checking in growth mixture modeling: Comment on Bauer and Curran(2003). *Psychological Methods*, 8, 369-377.
- Muthén, B., & Asparouhov, T. (2008).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with non-Gaussian random effects. In G. Fitzmaurice, M. Davidian, G. Verbeke, & G. Molenberghs(Eds.), *Longitudinal data analysis* (pp. 143-165). Boca Raton, FL: Chapman & Hall/CRC Press.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fathers' caregiving activities and sensitivity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200 - 219.
- Planalp, E. M., Braungart-Rieker, J. M., Lickenbrock, D. M., & Zentall, S. R. (2013). Trajectories of parenting during infancy: The role of infant temperament and marital adjustment for mothers and fathers. *Infancy*, 18, E16 - E45.
- Planalp, E. M., & Braungart-Rieker, J. M. (2016).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with young children: Evidence from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 birth cohor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1), 135-146.
- Pleck, J. H. (2010). Father involvement: Revised conceptualization and theoretical linkages with child outcom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459 - 485). Hoboken, NJ: Wiley.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25*, 111-163.
- Rindskopf, D. (2003). Mixture or homogeneous? Comment on Bauer and Curran(2003). *Psychological Methods, 8*, 364 - 368.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Shapiro, A. F., Gottman, J. M., & Carrere, S. (2000). The baby and the marriage: Identifying factors that buffer against decline in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59-70.
- Twenge, J. M, Campbell, W. K., Foster, C. A. (2003). Parenthood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574-583.
- Vaillant, C. O., & Vaillant, G. E. (1993). Is the U-curve of marital satisfaction an illusion? A 40-year stud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230-239.
- Volling, B. L., & Belsky, J.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461-474.

·논문접수 11월 7일 / 수정본 접수 11월 30일 / 게재 승인 12월 12일

·교신저자: 서미정, 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조교수, 이메일 mjseo@ejunu.ac.kr

Abstract

Longitudinal Relevance between Mother's Perceived Father Involv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Fathers and Mothers

Mijung Seo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lasses of trajectory in father involvement with young children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The change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by the classes of father involvement were also examined using latent growth model. The current study used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our classes of trajectory in father involvement were found. Among the four trajectory classes, the High Involvement-Stability class was the largest (63.4%), followed by the Middle Involvement-Stability class (26.4%), Middle Involvement-Increasing (6.1%) and the High Involvement-Decreasing class (4.1%). The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decreased with time regardless of the trajectory classes of father involvement. The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increased over time when the change type of father involvement was Middle Involvement-Increasing class. In the other father involvement type of change, the change rate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was different but showed decreasing change patter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parent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activated to promote fathers' continuous involvement an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in order to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for mothers.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ather involvement, marital satisfaction, growth mixture modeling, latent growth model